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2년 4월 27일(수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수 산 과	담당자	• 어업지도팀장 이재천 ☎440-4861 • 담당자 김 현 ☎440-4863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5월 한 달간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

- 봄철 어패류 산란기 수산자원보호 위해 -

- 시, 군구 어업지도선 10척 동시 투입 육상 및 해상 병행 실시 -

인천광역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과 연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5월이 금어기인 대표 어종에는 대하, 쭈꾸미, 전어 등이 있다.

이번 단속에는 인천시(수산과, 특별사법경찰과)와 군·구, 서해어업관리단, 인천해경,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 어업지도선과 강화·옹진군 어업지도선 10척이 동시 투입된다.

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, 해경함정과 불법어업 행위 관련 정보사항을 공유해 단속효과를 높이고,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·운영해 유통·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.

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▲금어기 위반 ▲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

량 위반 ▲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▲어린고기 불법 포획·유통행위 ▲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 ▲불법어구 제작·보관·유통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.

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. 또한,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5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도 배포·게시할 예정이다.

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“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”이며 “어업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〈사진〉 단속관련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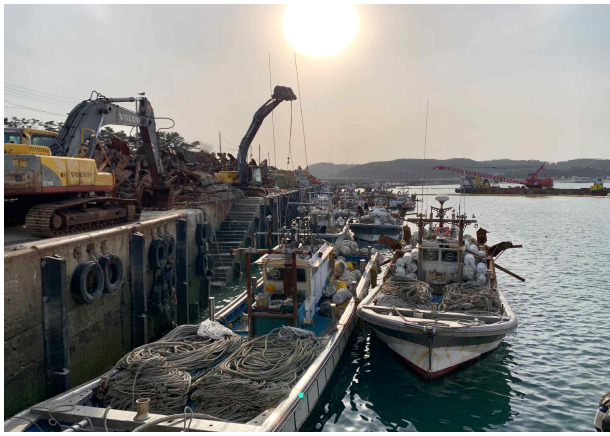
## <사진>



어업지도선 해상단속 사진



우범 항포구 불법어업 단속 사진



어선 출어진 전경 사진



2022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업무협의회 사진